

불자 세상보기



고준환 경대 명예교수 본각 선교원장

박근혜 정부는 7월 15일 남북통일의 청사진을 그릴 통일준비위원회를 민관 위원 50명으로 발족시켰다. 지난 2월 1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통일대박론에 기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에 이어 그 구상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대참사 등으로 그 조직구성이 늦어졌다. 이는 통일대박을 위한 기반구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민족의 남북통일은 역사적 지상과제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민족은 반만년 대륙국가의 영광을 이어왔으나, 20세기 초 일제에 강점당해 극심한 고초를 겪었고,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종료와 함께 해방됐으나, 제국주의 세력 등에 의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70년이 흘렀다. 그 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불행과 휴전 상태가 계속되면서 통일은 더욱 멀어졌다.

우리는 이제 심기일전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이루고, 남·북 경쟁 속에서 평화공존·평화교류를 한 걸음 한 걸음 통일과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흥익인간 광화세계와 보살도 실천의 불자 국민 입장에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 사회가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 한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다.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신뢰사회가 되려면 인연과보의 원칙,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법칙을 국민들이 철저히 알고 믿게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북 모두에 민족주체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수적차주하는 주인의식과 계급사관·사대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자주사관적 역사의식을 고양하고, 자주적인 국학(국사학, 국어학, 국토학 등)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한마음으로 단결하게 해야 한다. 그런 민족주체세력들은 주변강국인 미·일·중·러 등에게 분단지속보다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각국에 이

통일준비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익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 신동북아 질서를 재편성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한반도 통일에는 평화를 대전제로 하고, 북쪽도 희망과 기대를 갖도록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북쪽 백성들의 민생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크게 활용하는 등 남북간에 형재애로 굳어진 평화교류를 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의 감정은 정권이 민주적 자본제를 받아들여 하는 대신 한반도 6자 회담 등을 활용하여 북정권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자유·평등·평화의 민주적 자본제로 한반도를 통일하여 민주통일정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낮은 단계의 연합제, 연방제로부터 시작하여 1민족 1국가 1체제로 가야 한다. 네 번째는 그런 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민족 전체의 사상·생활·정서적 통일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은 불이중도(不二中道) 사상이자, 지금 우리사회는 이분법적인 대립갈등이 극심하므로 불이중도 사상으로 통일하면서 원효스님의 화쟁(和諍)사상이 삼

국통일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은 원용무애사상으로 불법은 육상(총·별·동·이·성·과상)이 원용하여 무애한 것이므로 우리는 동체대비로 대동(大同)사회를 형성해야 한다. 이어 세계가 천민자본주의로 극심한 빈부격차와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제3의 세계경제체제로서 불교 사회경제체제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소유체제가 사유를 기본으로 하되, 출가 수행자처럼 정신적 수준이 높은 만큼은 공유를 인정해주고, 무소유를 북극성으로 하는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바탕위에서 우리 불자들은 민족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북 불교사찰 순례단 운영, 불교사상과 주체사상의 비교세미나 등 제방법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교류를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역사적 민족 통일에는 한겨레 한마음으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차별금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시 땅밭기 선교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2010년 찬양인도자학교의 봉은사 '땅밭기' 동영상으로 알려진 선교 방식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종교 사원이나 성지에서 행해지는 이 같은 선교 행위는 매우 배타적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개신교의 배타적 선교행위는 이미 많은 지탄을 받았다. 2006년 6월 부산기독교 청년연합회 베스코에서 'Again 1907 in Busan' 부흥회를 열고 "사찰이 무너지라"는 주제의 기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땅밭기도 이웃종교의 성소가 무너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아닌 저주다. 더 이상 일부 개신교인의 망동으로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을 보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올해에도 봉축기간에도 가로 연등들이 훼손됐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는 예수제단이라는 단어가 노상전도를 벌이기

도 했다. 이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필요하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4대 종교 성직자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고 종교차별금지법, 종교평화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긍정적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13년 7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미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는 증오범죄법과 같은 법은 제도화 되었다. 실제 프랑스에서 개종을 강권하는 행위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르치지 반목과 갈등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에는 신념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과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세월호 유족 불교계에 감동한 이유

오는 7월 24일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맞아 불교계가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위령제'를 봉행하고 안산시불교연합회는 오후 7시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세월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한다. 아직 11명의 실종자가 돌아오지 않는 진도 팽목항에서도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이 실종자 귀환 특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불교계는 시종일관 유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여아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도 불교계가 보여준 행동들은 사회에 큰 귀감이 됐다.

현재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이 무기한 단식

에 들어갔으며, 김병권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장을 비롯해 5명의 유가족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장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행동에 감동한 것은 유가족들이다. 실제 교회 신도인 유가족 대변인이 기독교 언론에서 "서명운동 요청에 제일 반응이 빨랐던 곳이 조계종이었다", "스님의 지시를 의무적으로 따랐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는가. 유가족들은 숫자보다 그들의 태도에 더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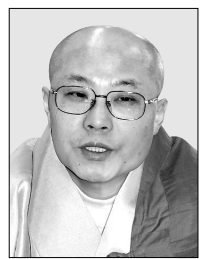
최근 고산문화재단이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계종의 대국민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고 조사됐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를 통해 보여준 불교의 행보는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회와의 소용'이 불교계의 진정성있는 행보로 점점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다. 모든 것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아말포 부정을 긍정으로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발언대

'땅밭기' 논란과 종교 평화

잇을 만하면 벌어지는 종교 갈등이 다시 일어났다. 이번에는 부처님 정각지인 부다가야까지 찾아가서 개신교 청년들이 '땅밭기' 선교를 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는 물론 개신교 내부에서도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종교 상생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종교 이해, 학교 교육에서부터



법안 스님 조계종 중앙총회 부의장 불교사회연구소장

부처님의 정각처인 인도 부다가야 마하보디사에서 벌어진 개신교인들의 '땅밭기'는 일부 보수 개신교인들이 종교관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들은 행태를 보면 이웃종교에 대한 최소한의 알음알이와 이해가 없어 보인다. 종교의 기본적 가치는 평화와 존재에 대한 존엄이다. 그럼에도 선교를 이유로 무례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종교관이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사회에서는 이 같은 무례를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나 증오범죄법 제정을 주장한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취지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도 한다. '차별 금지'는 당연한 명제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막기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 간 상생과 공존은 단순히 법제화로 이뤄질 것이 아니다. 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종교의 올바른 이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예수의 가르침은 공존·화합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협의 평화협의회

(땅밭기와 같은) 이 같은 행위는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는 것으로 기독교에도 엄청난 해를 입히는 행위다. 예수님은 공존과 화합의 가르침을 남기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아닐뿐더러 선교도 아닌 어리석은 일이다. 무책임한 행위를 한 젊은이들의 행동은 비판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그동안 종교활동에 매진해 온 신자들도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봐야 한다. 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런 물지각한 선교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종교의 역할은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주고 우리 사회에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등 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데 있다. 최근 벌어진 종교간 갈등과 반목은 오히려 시민들이 종교를 걱정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간에 전쟁을 치렀다.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21세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특히 종교로 인해 다툼이 발생해서는 더욱 아니될 일이다.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우리 사회의 양식을 길러야 한다.

이웃종교 대한 예의 갖춰야



박대선 교무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또한 전능 영광에 말상성지가 있다. 그 곳에서 근무할 때도 땅밭기와 같은 행위가 빈번했다. 다른 집에 가서는 그 집의 가풍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종교 성지에서는 최소한 그 종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세계를 다니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 앞에서 보이는 행위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자신의 신앙행위가 비종교인들과 다른 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혐오감을 주는지 스스로 살펴야 한다.

모두가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나무부터 내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는 아만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종교인으로서 각자의 종교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상대종교를 존중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우리 개개인이 이미 뿌리깊게 자리한 불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은 사회갈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의식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인모집. 영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사모곡, 회심곡, 백발가, 참회곡, 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허리·팔·다리·무릎·어깨 등... 통증이 있으시면 관절통 부위에 문질러 발라주시면 고통 끝! MSM Glucoid & Omega3 Cream